

“AI 규제프리 실증도시 광주의 길 갈 터”

■ 강기정 시장, 비상계엄 1년 앞두고 기자간담회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가치, 도시 성장 기회 삼을 것”

“내란의 빙산 아직 남아…국힘 반성·사과 거부” 지적

강기정 광주시장은 “AX 실증밸리 6000억원 사업, 국가NPU컴퓨팅센터 설립, AI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 등을 통해 규제프리 실증도시 광주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 가치를 도시 성장의 기회로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년은 ‘내란 청산’과 ‘국가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서 “비상계엄은 해제됐고, 내란 시도 역시 진압되었고 윤석열과 소수의 내란 세력은 심판대에 섰지만, 아직 거대한 ‘내란의 빙산’은 수면 아래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이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시장은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뿐 아니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사고 있는 추경호 전 대표, 부정 선거론과 혐오를 부추기는 거리의 내란 세력과도 결별해야 한다. 힘들더라도 반성하고, 아프더라도 결별해야 한다. 그래야 공당”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1년과 관련 광주시가 준비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강 시장은 “1년 전 계엄의 밤, 계엄사의 청사 폐쇄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공 공동 ‘연석회의’를 열었던 광주가 1일부터 12일까지를 ‘민주주의 주간’으로

정했다”며 “백서 전달, 공동 기자회견,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국제포럼 등”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은 광주 오월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우리 시는 오월정신의 근원지인 망월묘역을 빛의혁명 발원지로 조성하는 사업, 이웃과 피를 나누던 적십자 병원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오월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입법화 등을 통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정보도시사진전 개막 1일 오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025 광주시정보도시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신동하 광주 동구 부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기장 서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진수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문인 북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주관으로 열리는 ‘2025 광주시정보도시사진전’은 올 한 해 동안의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행정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보도사진 100점을 선보인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국제농업박람회 3000만달러 수출협약 실계약으로 잇는다

박람회재단 4~5일 나주서 해외바이어 사후 수출컨설팅

(재)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대표이사 김행란)가 지난 10월 박람회 수출상담회에서 거둔 3304만 달러(약 463억원) 규모의 수출협약(MOU) 성과를 실질적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팔을 걷어붙였다.

박람회재단은 오는 4~5일 나주 웨스턴호텔에서 지난 수출상담회 당시 수출협약을 한 24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5 해외바이어 사후 수출컨설팅’을 개최한다.

컨설팅은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통관 절차와 국가별 규제 등으로 실제 선적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수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계약 이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박람회재단은 지난 10월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2025 국제농업박람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17개국 50개 사 바이어와 국내 100개 수출기업이 참여한 이 상담회에선 총 639건의 열띤 상담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총 3304만달러의 수출협약 패거리를 거뒀다.

특히 전남의 대표 농산물인 ‘채청무 쌀’이 277만 달러(약 40억원)의 협약을 이끌어내며 세계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3027만달러(약 423억원)의 성과를 올렸다. 또 한 멕시코와 케냐 등 신규 시장 바이어를 발굴하고,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과 영국 바이어와의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판로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후 컨설팅은 이러한 성과가 문서상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도록 돕는 ‘수출 인큐베이팅’과정이다. 행사에는 수출협약 기업 관계자 30여명과 무역 전문가, 관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프로그램은 한문철 전남식품수출협회장의 협약 이후 수출기업 준비사항, 김호진 엘피스코퍼레이션 이사의 유럽시장 트렌드와 수출 준비전략 등 실무 중심의 특강으로 준비됐다.

특히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통관과 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진민형 관세사(관세법인 더블유) 등 분야별 전문가가 멘토로 나선다.

행사 첫날인 4일 바이어 응대 전략 수립과 국가별 수출 프로세스 점검 교육이 진행되고, 5일 기업별 1대1 맞춤형 수출 멘토링이 이어진다.

멘토링에서는 협약을 한 바이어와의 교신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선적 서류 준비 등 단계별 밀착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관수 (재)전남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협약이 수출의 첫 단추라면, 실제 계약과 선적은 수출의 완성”이라며 “이번 사후 컨설팅을 통해 우수 농식품 기업이 해외 바이어와의 약속을 실제 성과로 실현하고, 나아가 전남 농업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꾸다. AI와 함께하는 농업 혁신, 생명 살리는 K-농업’을 주제로 지난 10월 열렸던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글로벌 농산업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쿠팡 정보유출 징벌적손배 작동 안해”

강훈식 비서실장, 제도 보완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다고 전은 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4차례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됐다.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제도 보완책 및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내년도 광주 통합돌봄 예산 90억원 편성

박미정 시의원 “국비 13억 확보…시민 체감형 서비스 극대화”

광주시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도 통합돌봄 예산 90억원을 편성하고, 이중 국비 13억4500만원을 확보했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안은 총 9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 선정으로 국비 13억4500만원이 반영돼 시비 부담이 조정되고 재정 운용 효율이 높아졌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구비 예산은 총 63억1000만원(시비 47억3300만원, 구비 15억7700만원)으로, 시·구 부담 비율 75대 25를 기존 체계 그대로 유지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법 시행 첫해를 맞아 광주는 국비와 시·구비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재정을 안정화하고, 노인맞춤

돌봄 등 국가돌봄예산은 전년 대비 15억원 증가해 시민 체감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4월 서비스 개시 이후 21개월간 1만7486명의 시민에게 가사·식사·동행·의료·주거·긴급 돌봄 등 총 3만153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가정방문은 4만6577건에 달했다.

2025년부터는 시·구에 의료돌봄 매니저를 배치하고 방문진료·방문간호·맞춤운동·구강건강 등 의료서비스를 본격 확대했다. 이를 통해 생활돌봄과 의료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다.

또 악취·쓰레기·영양실조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거동 불편 환자, 부모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 사각지대 시민에게 맞춤 서비

스를 제공하며 건강과 일상을 회복시키고 있다.

2024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국가 표준 체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박미정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형 통합돌봄 조례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시행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모델로 삼아,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박 의원은 이날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앞선 통합돌봄 모델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국비 확보는 그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법 시행 원년인 2026년은 광주 돌봄정책의 확장기이자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주형 모델은 단순한 선도 사례를 넘어 국가 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2026년 법 시행 원년을 계기로 광주 통합돌봄 경험을 전국에 확산하고, 국비와 시비를 연계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6·3지방선거 180일 앞

전남도선관위 위법행위 예방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5일부터 본격적인 위법행위 예방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임후보예정자 등이 유의해야 할 각종 제한·금지행위를 집중 안내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기회균등 보장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올해는 5일부터 내년 6월 3일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물 형태로 발행하거나 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주관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참여도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임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 또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단체의 설립·활동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도 정당·후보자의 명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방식의 선전은 금지된다. 이현규 기자

내년 노인일자리 3만6440개 창출

시, 1574억 투입…공익·취업지원 등

광주시가 내년 노인 일자리사업에 15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만644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72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모집원은 사업유형별로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사업 2만6479명, 보육시설보호 등 노인역량활용사업 6038명, 매장운영 등 공동체사업단 2754명, 민간업체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사업 1169명이다.

모집대상은 광주시 거주 어르신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기준을 충족한 어르신이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다른 부처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변증·주민등록등본·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등 행정복지센터나 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

▶1면 ‘사랑의 온도탑’서 계속

올해 광주의 기부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51억2000만원이다. 앞서 광주는 2020년(102도), 2021년(100도), 2022년(135도), 2024년(110도), 2025년(116.1도) 등 5년 연속 100도를 넘겼다.

이날 강기정 시장 등 행사 내빈들은 직접 준비한 첫 기부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불씨를 지폈다.

기업에서는 △기아오트랜드광주공장 2억6400만원 △광주은행 1억4700만원 △농협 광주본부 9600만원 △KT&G전남제주본부 4000만원 등 후원으로 캠페인 출범에 힘을 실었다.

100만원 이상 기부하는 ‘나눔리더’에는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등 23명의 세무사가 가입해 나눔 온기를 더했다.

전남의 온도탑 목표 모금액은 113억9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전남 사랑의 온도탑은 2019년(101도), 2020년(100도), 2021년(131도), 2022년(118도), 2023년(106도), 2024년(118도), 2025년(125.2도) 등 6년 연속 100도를 넘겼다.

이날 행사에서 NH농협은행 전남본부가 1억원 △전남도의회가 1143만2410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온도탑의 수주주를 높였다. 또 나눔명료기업(기부금 5억원)인 한전KPS㈜가 5억원을 안냈으며, (재)메모리리츠주모공원은 1억원을 약정하며 캠페인 출범에 힘을 실었다.